

사설

여성부 출범과 불교계 과제

29일 여성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고 초대 장관에 한명숙씨가 임명되었다.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남성과 여성이 조화로운 동반자로 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계기로 우리 불교계도 좀 더 여성 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성 차별을 극복하고 남성과 여성이 올바르게 조화 협력하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모습(二相)에 매달려 인간이라는 하나의 바탕을 망각하는 성관념을 극복하고 인간이라는 평등성에 입각하여 남성과 여성이라는 평등을 볼 때 차별은 극복될 수 있다. 그렇게 남성과 여성이라는 상(相)을 바로 보게 될 때 획일적인 평등화를 지양하여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올바르게 실현하는 진정한 평등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불교계 내 여성의 위상이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한다. 여성들이 수직적인 비율에서 수평적이라는 지위와 위상을 부여받고 있지 못

한 현실을 개혁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여성신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결맞게 일정한 지위를 부여하고 그들의 실행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비구니스님들의 위상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전향적이고 진취적인 계층의 해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부처님 당시에 여성을 수행자로 받아들인 것은 혁명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출가 승단은 재가 신도가 이상으로 삼아야 할 모범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어떤 방식이든 비구니스님들의 위상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의 정리가 있어야 한다. 우선은 계층의 적용을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그 밖의 영역에서 비구니들이 차지하는 중단의 비중이 결맞도록 그 지위와 역할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불교계가 현실을 이끌어가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진취적인 입장에서 불교계 내부의 여성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한다.

불교대 교수임용 또 '잡음'

한국불교학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동국대 불교대학의 교수임용을 둘러싸고 또 잡음이 일고 있다. 지난 1월 30일 열린 이사회가 불교대학 교수임용을 놓고 소란스러웠다는 소리가 들린다. 원전 연구가 필수인 강좌를 맡을 교수에 전공 언어 분야에 학자가 있는 지원자를 교원으로 뽑겠다고 수차례나 시도하고 있으며, 초빙 공고에 공개된 전공까지 무시한 비전공자의 임용을 제정했다는 것이 시끄러웠던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인사 이후에는 여러 말들이 나오기 마련이지만, 이번 인사 뒤에 들려오는 말들의 정도가 예전 같지 않다. 비난에 가까운 원성이 무성하게 유포되고 있다. 이번 불교대학 교수 임용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인지 이사회에서는 '조건부 승인' 하되 임용 과정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한 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끌어보자는 계산인지는 이사회가 최종 결정 시한으로 잡은 보름쯤 이후에 밝혀질 것이다.

100년 가까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조계종립 동국대학교가 천체의

늘에서 벗어나려고 학교 재정비와 수도권에 불교병원을 건립하는 등 면면을 일신하여 불자들이 동국대에 거는 기대가 되살아나고 있는 요즘이다. 그런데 유독 선도 대학이랄 수 있는 불교대학의 발전만은 지지부진하여 교수초빙마저 매년 이처럼 잡음이 휩싸여 있다. 재단이나 학교 당국이 과연 불교대학의 발전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동국대 밖의 불교학자들은 동국대 불교학의 폐쇄성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으로 회자하고 있으며, 낙후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크게 안타까워하고 있다.

동국대학교를 경영하는 당국자들이나 소속 교수들은 전혀 이러한 현실 감각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가당착에 고착되어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향후 20~30년동안 불교학을 지도할 인재를 임용하는데 잡음이 끊이지 않으니 동국대학교가 한국 불교 미래에 전혀 희망없는 존재로 비추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세계불교학에 앞서 갈 수 있는 인재를 잘 발굴하여 더 이상 잡음이 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기대한다.

종교간 불신의 벽 깬다

URI 정기 대화포럼 · 평화건설 운동 전개
6개 종교 청년 토론회...평신도단체 연대

유엔이 정한 '문명간 대화의 해'를 맞아 종교적 입장에서 세계 문명들을 살펴보는 정기포럼과 종교간 대화포럼, 인권 및 종교계 개혁을 위한 종교단체 연대 등의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한국종교연합선도기구(URI-KOREA, 대표 진월스님)는 종교간 반목을 불식시키고 이해와 협력을 넓히기 위해 정기 포럼개최, 평화건설(Peace Building) 운동을 전개한다.

진월스님은 "이 포럼은 종교로 인한 대립의 과거사를 반성하고 공존과 화해를 통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윤리를 실천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말했다.

제1회 포럼은 19일 오후 3시 세종문화회관에서 크리스찬아카데미 연구원 김진 박사를 초청해

'종교간 대화의 문명사적 이해'란 주제강연을 듣고 토론을 벌인다. 4월에는 유교(성균관대 이세현교수), 6월 불교(진월스님), 9월 기독교, 11월 이슬람교 및 힌두교적 입장에서 본 종교와 문명간의 관계에 대해 포럼을 개최한다.

진월스님은 "이 포럼은 종교로 인한 대립의 과거사를 반성하고 공존과 화해를 통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윤리를 실천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말했다.

제1회 포럼은 19일 오후 3시 세종문화회관에서 크리스찬아카데미 연구원 김진 박사를 초청해

성직자 지방 대학(원)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21세기 종교간 대화와 협력을 위한 모색'을 주제로 종교 청년 대화포럼을 갖는다.

공통의 현안을 함께 공유하며 해결하기 위한 종교단체간 연대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불교인권위원회도 기독교교회협의회, 천주교주교회의와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심포지엄과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합의하고 12일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이 같은 종교간 대화와 단체연대 움직임은 종교간 이해를 증진시키고, 종교계가 협력을 통해 사회제문제해결에 나서겠다는 것에서 이복이 집중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종교지도자 초청 국정좌담회가 1월31일 총리공관에서 열렸다.

잡은개각 등 국정전반에 쓴소리

종교지도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따끔하게 충고했다.

이한동 국무총리가 1월31일 종교지도자들을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가진 국정좌담회에서 종교지도자들은 대북 정책, 잡은 개각, 안기부 예산의 선거자금 지원 파문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충고하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정대승님은 "장관 인사를 자주 해서야 언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일을 성공적으로 하게 하려면 적어도 1년 이상 시간을 줘야 한다"며 "그 동안 정부가 국민연금, 의약분업 등 좋은 제도를 시행하면서 호부 부족으로 국민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홍파스님(관음종 총무원장)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에 왔을 때 6.25 전쟁 당시의 많은 피해자들을 생각해 정부에서 다각적인 분석을 하고 관심을 뒤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동 총리는 "종교지도자 여러분의 의견을 국가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정부에서 총리와 각 부장관들이 참석했으며 정대조계종 총무원장, 종연 태고종 총무원장, 은덕 천태종 총무원장, 성초 선각종 총무원장, 홍파 관음종 총무원장, 서문각 불교진흥원 이사장, 김규철 불교방송 사장을 비롯하여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정성윤 기자

'수행·사회 참여강화의 해' 선언

20여 재가단체 신년하례

조계종 중앙신도회, 포교사단, 재가연대, 대한불교청년회, 지하철불자회, 여성개발원등 재가 20여 단체는 1월 31일 송현리에서 신년 재가불자 신년하례회<사진>를 갖고 수행과 현실참여에 주력하는 불교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발원했다.

백장기 중앙신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가불자들이 중단과 사회 참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체적 신앙관을 확립하여 재가불자의 잠재된 힘을 결집하자"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포교, 불교시민, 여

성, 지역신도, 청년, 직장직능포교에 대해 함께 점검하고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김중서(전 서울대교수) 조총장(전 성균관대 교수) 민병천(전 동국대총장) 명을식(한마음선원 신도회장) 박광서(재가연대 대표) 김기병(포교사단장) 신진규(전국신도회장)장법사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김원우 기자



동국학원 교원 21명 임명 불교대 조건부 승인 물의

동국학원은 1월 30일 제175차 이사회를 열고, 2001학년도 동국대 신규 교원 21명을 새로 임명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동국대 교원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친 신규교원 임용제청안과 관련, 신규 임용자 가운데 불교대 4명의 신규교원에 대해 임용 과정 재심사를 실시한 후 8일경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신규교원명단 4명>

이번 교수임용에서 중국선조사 분야에는 당초 '초빙 공고'와는 달리 한국불교를 전공한 지원자를 임용하고, 강의가 개설되지 않은 '인명' 분야를 임용한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오종욱 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인도주의 정신으로

조계종 환경위 이달말 발족

골프장등 사찰환경 침해사례집도 펴내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부장 양산)는 90년대 이후 전국 88개 사찰의 환경 피해사례를 수집해 유형별 분석과 함께 대응지침등을 다룬 <사찰환경침해 사례집>을 5일 발간했다.

총무원은 이 책자에서 지자체로부터 부적절한 허가 판결을 받았던 해인 골프장건설문제를 비롯해 직지사 상업시설문제와 봉녕사 고층아파트 건설문제, 환경관련 법률자료와 환경 정보를 수록하고 사찰 환경지침과 보존 관리요령등을 포함시켜, 지역 사찰에서 환경문제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한편 조계종은 기존의 사찰환경보전위원회를 확대·개편, 2월말 종단차원의 환경전담기구인 환경위원회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영계리포트 배포 유감"

세계일보 종편위에 혁신

세계일보는 1월 29일 조계종 총무원장에 보낸 회신공문을 통해 "영계리포트는 세계일보의 자회사인 제작사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회로부터 수주를 받아 제작 배포된 것이다"고 밝혔다.

또 "제작 의뢰자측이 편집해온 것을 그대로 인쇄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계종평화대행위 "세계일보의 사과문 게재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포교현장의 법사양성 (3년과정)

2001학년도 **법사과정 경전연구원** 신입생 모집

1. 교과목 및 교수

구분	요일	과목	교수	내용	방법(모집인원)
①	월요일	법화경	박종 (동산대)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 보문시현의 원력을 강의 <관세음 보문품>	정규반 (50명)
	화요일	화엄경	한정섭 (금강선원이사장)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는 보리장회 강의 <세주포법품, 약장품, 법상계>	통신반 (30명)
* 경전개설과목 : □ 법화경 법림품, 법화경 여래수량품, 법화경 관세음보문품, □ 화엄경 약장계·법상계, 화엄경 십지품, 화엄경 입법계품, 화엄경 보행행원품 □ 금강경, 무량수경, 대승불교, 보살론등 강좌					
②	목요일	아함경의 전개	최봉수(동국대)	아함경, 반야경, 법화경, 무량수경을 관통하는 근본교설 강의	정규반,통신반(각30명)
구분	방법	교수	내용		방법(모집인원)
③	통신강좌	송찬우(송가대)	반야심경, 금강경, 대승기신론, 유마경, 조론, 능엄경을 송찬우교수의 명쾌한 강의로 통신 수강		통신반 (30명)

2. 모집방법 및 전형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① 불교대학(정규)이수자 ② 불교교양대학 이수자 ③ 과목별 이수 희망자	① 입학원서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방명합판사진 3매 ④ 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2001년 2월 1일~ 2001년 3월 3일(토) (서류전형)	매주 월~화요일 오후 7시~9시 (본연구원 법당)

3. 개강일시

- ① 정규반 : 2001년 3월 5일 (월) 오후 7시
- ② 근본불교반 : 2001년 3월 8일(목) 오후 4시

4. 입학금

5. 졸업자격

- 3년과정의 부처님의 법음이 가득찬 경전(매주 2강좌)을 이수한 분에게 연구원 졸업장(전법사)를 수여함.

6. 원서문의 교부·접수

- 본 연구원 사무국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 ☎02)732-1206 ~ 8 / FAX 02)732-1207

주부·직장인을 위한 불교대학(2년과정)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들을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교육과 직장인을 위한 2년 과정을 개설!

■ 모집기간 : 연2회(매년 2월,8월)
■ 모집인원 : 200명

1.교과목

1학년 교과목 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한국불교사·유식사상·경도사상·법화사상·반야사상·화엄사상·불교사회복지론

2학년 교과목 불교학개론·선종사상·불교미술·밀교사상·포교방법론·근본불교·대승불교·비교종교론·불교상담론

2.정규반, 주간반, 통신반

3. 문의처 ☎02)732-1206-8 / FAX 02)732-1207

4. 특전사항

- 조계종 포교사 고시 거쳐 포교사 자격증 취득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2001년도 도시생활 포교자를 위한 (1년과정)

한글의식교육원 신입생 모집

1. 지도법사 및 교과내용

개강일시 : 2001년 3월 3일 (토) 오후 1시

지도법사 : 권지홍 법사, 문중순 법사

한글불교의식 I (전반기)	한글불교의식 II (후반기)
· 아침·저녁으로 행하는 예경의식 · 사시 또는 형편에 따라 행하는 헌공의식 · 정기적으로 행하는 법회 의식 · 송주 정염염불	· 백일·돌·생일의식과 결혼의식 · 장례의식 (1) 일반의식 · 장례의식 (2) 임종·매장·화장의식 · 제공의식 및 영혼천도를 위한 천도 의식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 50명(1년)	① 한국불교의식 희망자	① 입학원서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2001년 2월 1일(목)~ 2001년 3월 3일(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30분~3시 (동산법당)
연구반 30명(1년)	② 포교당 운영자	③ 방명합판사진 3매		

* 연구반은 정규반 이수자에 한함.

3. 입학금

- 일십만원

5. 원서 교부·접수

- 본 연구원 사무국
- ☎ 732-1206 ~ 8 / FAX 732-1207 (10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4. 특 전

-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수여

홈페이지 - http : www.dongsanbud.org